

## 측정속성의 선택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취득 시점 후에는 양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취득원가는 사용가치와도 동일하지 않다. 부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게 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역사적 현금수취액 또는 이행가액이 회계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의 경우는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 현재가치의 측정

공정가치나 기업특유가치와 같은 측정속성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과정에서 항상 할인율의 일부로 반영된다. 위험은 발생가능한 각 미래 현금흐름 크기와 그 현금흐름의 기대치 차이 등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분포가 넓을수록 위험이 큰 것이다.

# 비율분석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비율이다.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한다.

재무비율분석이란 분석목적에 따라 적합한 비율을 구성하여 기준이 되는 수치와 비교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

짧은 기간(보통 1년)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중요시하는 비율이다. 유동성비율은 단 기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한다.

유동성 비율로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과, 유동자산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부분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을 말하는 당좌비율이 있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 등이 있다.

## 안전성비율(Safety ratio)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본이 기업의 자산에 얼마나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매점 안정성을 측정하는 경영지표에는 자기자본비율,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비율 등이 있다.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

손익계산서상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수익에서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결국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나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된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고 나쁨을 표시해주는 재무분석지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자기자본 순이익률(\%)} = (\text{세후 순이익}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부채성비율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타인 자본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이며, 특히 장기 부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안정성과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일반적인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측정하지만, 종종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측정되거나 언급되기도 한다.

타인자본(총 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이자보상 비율이 있다.

즉, 부채비율=총 부채/총자산,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총 부채/자기자본,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 바로 활동성비율이다.

자산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평균회수기간=매출채권 $\times$ 365/매출액,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 이다.

손익 계산서의 각 항목의 비율이나 손익 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의 항목 간의 비율 등 기업의 동태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주로 경영 활동의 효율을 진단하기 위하여 쓰며, 자본수익률 · 재고자산회전율 ·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있다.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이윤발생을 위한 자산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은 수익성비율이다. 경영의 총괄적인 효율성의 결과를 매출에 대한 수익이나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나타내는 비율들을 말한다.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한편,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한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은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 생산성비율(Productivity Ratio)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능률 및 업적을 평가하는 비율들이다.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누는 노동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부가가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생산성(총자본 투자 효율)등이 자주 쓰인다.

##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

투입된 자본과 산출량의 비율로 표시되는 자본의 유효이용도를 말한다. 기업에 투 하한 자본을 운영한 결과로 얻어진 부가가치액 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 본이 부가가치생산에 어느정 도 이바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자본이란 산출에 기여하는 자원의 의미로 생산설비의 양, 생산능 력(물적 표시), 유형고정자산액(가치적 표시) 등을 들 수 있으며 산출량으로는 생산량, 생산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을 들 수 있 다.



## 회전율(Turnover Ratio)

자산회전율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산측면에서 전체 적인 성과척도를 나타내며 '순매출액 ÷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상품재고 회전율이란 특정기간(보통 1년) 동안 점포 내에서 재고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여러 번 순환되는가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재고회전율이 클수록 좋다.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재고자산회전율을 구할 수 있다.

상품재고회전율은 상품구성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판단기준) 중의 하나이며 평균상품 재고액의 변화 없이 매출액이 향상되면 상품회전율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 이자보상률(times interest earned)

이자 보상률( $EBIT \div$  이자지급액)은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이자 차감 전 영업 이익을 장기 부채의 이자 지급액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 이익으로 장기 부채의 이자를 몇 배까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기업이 장기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보기 위한 재무레버리지 척도로서 EBIT에 의해 이자가 어느 정도 보상되고 있는가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자보상률은 감가상각비 등의 비현금지출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 Tax) =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전 이익)가 이자 및 기타금융비용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실제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자만이 상환되어야 할 유일한 금융비용이라고 가정하는 단점이 있다.

## 수익성지표(Profitability index)

기업의 경영 정책과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기업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수익의 절대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투하된 자본의 단위당 수익의 크기, 즉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의 지표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투자가 된다.



# GMROI(Gross Margin Return On Inventory Investment)

재고투자수익률(총 마진수익률)이라고도 하며 협소한 유통매장의 진열대에서 제거 또는 추가돼야 할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척도)을 제공하며, 상품(상품관리자와 바이어)의 단기적인 성과지표를 나타낸다. 이익관리와 재고관리를 결합한 성과 측정치이다.

- GMROI산식 =  $\frac{\text{투자수익률}}{\text{평균재고자산}} = \frac{\text{투자수익률}}{\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평균재고자산}}$   
= 매출액 이익률 X 재고자산 회전율

## 손익분기점(BEP) 분석

손익분기점분석(the break-even point analysis)은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용 및 매출액 수준과 이익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판매수량 혹은 매출액을 의미한다.

경영자가 손익분기점분석을 통해 어떤 특정가격과 원가 구조하에서 기업이 얼마를 판매해야만 손익이 분기되는가를 예측하는 방법 또는 판매액이 손익분기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 되는지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은 적자를 면하는 최소한의 매출량을 말하며 이는 미래 수익발생능력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이 총 고정원가를 회수하는데 사용된다고 본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손익분기 매출액은 늘어난다.

안전율(MS : margin of safety)이란 기업이 손실 없이 조업을 단축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 손익분기점(BEP) 분석기법

- 매출액 = 매출액 × 변동비율 + 고정원가
- 판매량 ×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량 × 단위당 변동원가 + 고정원가
- 총 수익 = 총 비용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 / 공헌이익률
-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목표이익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비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은 적자를 면하는 최소한의 매출량을 말하며 이는 미래 수익발생능력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손익분기매출액은 늘어난다.

##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 고정비(고정원가)

조업도와 무관하게 조업도 “영”인상태도 이미 발생하며, 총액이 일정 한 것이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반비례,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이다.

### 변동비(변동원가)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액이 비례증가 변동하는 것으로 모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있다. 단위당 변동비는 조업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며, 간접비는 고정비 또는 변동비 일 수도 있다.

## 준고정비(계단원가)

일정단계 조업도 까지만 원가가 고정. 조업도에 따라 원가가 계단 형태로 간다. 일정한 범위 내의 조업도 변화에서는 고정적(불변적)이고, 그것을 넘으면 급증하여 재차 고정화 해가는 원가요소를 말한다. 공장감독자의 급여(1사람인 10명감독/2사람~20명까지 감독)

## 준변동비(준변동원가)

특정한 범위의 조업도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하지만, 조업도가 이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현재의 설비로 모두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추가로 설비투자를 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나 추가로 감독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급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